

북한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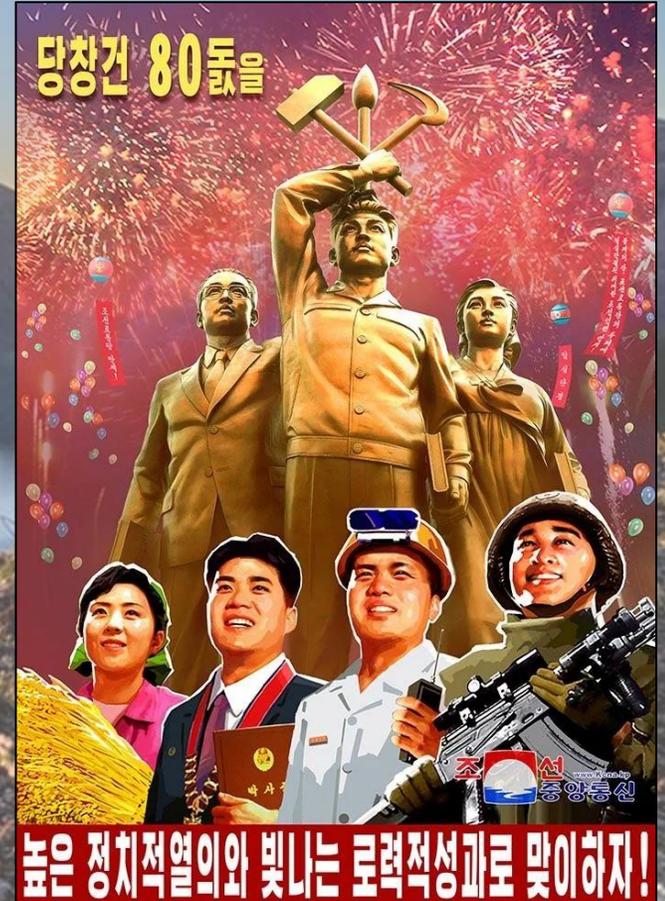
2025년 2월



1. 2025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5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 9차 당대회 등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경제적 성과와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건설 사업들과 치적들이 대부분이며 진정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한 조치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이 무기개발과 치적 쌓기가 아닌, 민생 개선에 진정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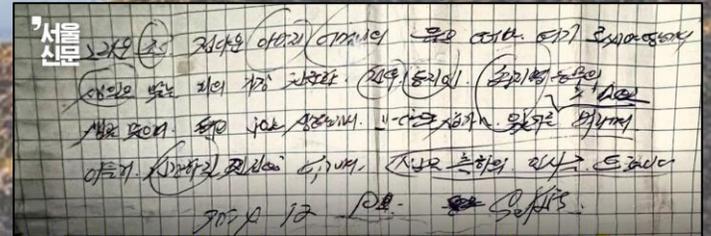
2. 러우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상당하여 사상자의 수가 이미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 더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이 북러 관계 밀착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 북한이 이를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도 러우 전쟁의 향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무고한 피 흘림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 종식을 통해 해당 지역과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러시아 땅에서 죽어간 북한군
그의 품속에 남겨진 편지**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북한	11	인도
2	소말리아	12	사우디아라비아
3	예멘	13	미얀마
4	리비아	14	말리
5	수단	15	중국
6	에리트레아	16	몰디브
7	나이지리아	17	이라크
8	파키스탄	18	시리아
9	이란	19	알제리
10	아프가니스탄	20	부르키나파소

(자료: 한국외교부연락처)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강제복송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련 매체 보도가 있습니다.

간혀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제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은 소위 3대 악법이라 불리는 각종 사상문화 통제 법령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강도 높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도 미디어 접촉과 공유를 죄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년에서 십 년 이상의 극심한 처벌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및 각종 강제 노동과 고문 등 기존부터 제기되어 온 인권 문제들도 여전하며, 이러한 문제가 기독교 박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악습과 행태가 하루 속히 중단 및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제27조 (금조신사경문화신파죄)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남조선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6. 북한의 김정은은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며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지칭하던 '수령'으로 칭하며 자신의 권위를 선대보다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 강화는 결국 이에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 박해 강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상화에 집착할수록 그 우상화의 근거가 되는 핵을 포기할 수 없게 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도 심해집니다.

북한이 지도자 우상화가 중단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제 3국에서 탈북 여성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탈북 여성들에 대한 행방을 엄격하게 추적, 관리하는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여러 탈북 여성들이 붙잡혀 수일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엄중해진 상황 속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복송의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3국 탈북 여성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강제 복송이 하루 속히 중단되어 탈북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탈북 여성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